



장수소방서,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가을이 다가오며 버섯 등 임산물 채취가 시작되면서 산악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은 해당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지 않고 다니고 있고, 주로 등산로가 아닌 외진 곳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길을 잃기 쉽고 길을 헤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산행 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기 △에너지 보충을 위해 음식물 준비 및 섭취하기 △2인 이상 동료들과 함께 하기 △지형을 모르는 산은 깊이 들어가지 않기 △해지기 1~2시간 전 산행을 마무리하기 등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진형 남원경찰서장, 현장대응 순회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 김진형 서장은 지난 23일부터 중앙·도동지구대를 시작으로 관내 지역관서를 순회하면서 사회적 약자 신고 관련 현장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는 스톱킹 등 사회적 약자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방법과 유의사항, 각 기능 협업체계 설명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김진형 서장은 "최근 사회적 약자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숙지 및 법과 절차에 맞게 엄정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23일, 남원시청, 남원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유해지역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및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자치경찰 사무로, 청소년 밀집지역 및 범죄 우려지역 중심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활동에서는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및 유해업소 업주·종업원계도 활동, 청소년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장소 실질적 순찰 개, 학교·가정 밖 위기청소년 발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홍보전단지 배부하면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도활동도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곳곳서 주민 화합의 장 열려

화합 한마당 큰잔치·한마음 걷기대회·노래자랑 등 개최

가을을 맞아 정읍지역 곳곳에서 마을 행사와 체육대회가 잇따르면서 마을마다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24일 산외초등학교에서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산외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 기념식에서는 9명의 모범주민과 출향인에게 표창장과 공로패,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산외면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된 민속경기에서는 축구공 달리기, 투호 놀이, 고리 걸기 등 다채로운 경기가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에서는 각설이 타령과 평양 예술공연단의 공연이 열려 주민들의 흥을 돋웠다.

△장명동에서는 장명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명주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광광 정읍시 체육회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서는 김형수 장명동 2통장이 정읍시장 감사패를 정창영 체육회장과 박희정 체육회장이 정읍시 체육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또 행사에 참여한 주민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간식을 제공했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감곡면에서는 감곡면민의 날을 기념해 감곡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는 감곡농악단과 정읍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된 노래자랑과 각설이 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화일마을 장길현 씨가 면민의 장 공익장을 김영배 이장협의회장이 국회의원상을 오공마을 김복식 씨와 원삼마을 양민철 씨가 지역발전엔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읍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체육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진명신 씨가 정읍시 체육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는 감곡농악단과 정읍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된 노래자랑과 각설이 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화일마을 장길현 씨가 면민의 장 공익장을 김영배 이장협의회장이 국회의원상을 오공마을 김복식 씨와 원삼마을 양민철 씨가 지역발전엔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읍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체육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진명신 씨가 정읍시 체육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금산면, 면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열려

김제시 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서효연)는 지난 23일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흥겨운 마당극 '당골포차'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금산면행정복지센터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 주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 문화공연으로써, 코로나19로 사라진 문화공연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드리 고자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공연단 '연희집단The광대'는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의 민속예술을 전공한 연희자들로 구성되어 국내.외를 오가며 우리 연희의 신명과 멋을 널리 알리고 있는 우수한 공연단이다. 마당극 '당골포차'는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을 포차로 초대하여 그들의 애환을 달래고 풀어주는 내용으로 흐드러지게 늘어선 나무의 그늘과 선선한 가을날씨가 어울어져 금산면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은 멋진 무대가 되었고, 오고 가는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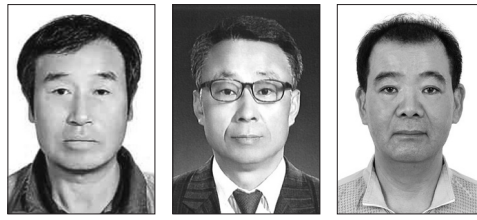
진안 백운면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진안군 백운면(면장 광동원)은 지난 23일 2022년도 면민의 장 3개 부문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화체육장에 박진석(65), 공익장에 윤주호(67), 애향장에 최명호(54)씨다.

문화체육장 수상자 박진석씨는 1999년 백운면 배구동호회 창단을 시작하고, 2005~2008년 회장을 역임하며, 각종 전국 배구대회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지역홍보에 앞장섰으며, 관내 각종 배구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고, 현재는 게이트볼동호회 활동하면서 백운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는 등 체육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됐다.

공로상 수상자 윤주호씨는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32년간) 백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남다른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면민들의 사소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혼자 살고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수시로 방문해 불편사항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백운면 자율방범대장 활동하며, 면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중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헌신 노력했다. 농촌지역 인구소멸



문화체육장 박진석 공익장 윤주호 애향장 최명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현안을 위해 산림특목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불철주야 활동 중인 자 면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애향장 수상자 최명호씨는 재경백운면향우회 총무로 활동 하면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향우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면민의 날, 각종 향우회 행사 참석을 적극 유도하여 백운 내·외 면민의 날 유대 강화한 공이 커 애향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진봉면 새사모, '새만금바람길' 알리기 최선

새만금 바람길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함께 보며 걸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마실길로 진봉면사무소에서 출발하여 망해사를 거쳐 심포항, 봉수대를 잇는 10Km구간이다.

자연생태와 농촌풍경이 잘 어우러진 새만금바람길은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2011년 11월 조성되었으며 새만금 사업현장 인근에 접하여 새만금바람길 탐방과 더불어 새만금 사업현장을 보는 것은 물론 느릅나무 길재 펠라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보리가 익어가는 5월과 벼가 익어가는 10월에는 황금들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다.

진봉면 주민 자생 단체인 새사모(새만금바람길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새만금 바람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바람길 걷는 날 행사 진행 및 주변환경정비, 꽃심기 행사, 바람개비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걷기행사 시 진봉에서 생산하는 햅쌀을 선물로 증정하는 등 새만금 바람길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진봉면이 서해안의 새로운 명소, 건강향 마실길(관광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도내 농기계 사고는 1,376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35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모내기철(4~5월), 수확철(9~10월)에 집중 발생했다.

또한 농기계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절대금지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설치 △기계가 감기지 않도록 열명한 작업복자제 △작업 전·후 안전점검 실시 △농기계 운행시 좁은 농로 및 경사진 길의 감속운행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